

주간기도정보

2025. 12. 2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사 62:7) 주님은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간기도정보는 이 말씀에 근거하며, 열방의 소식들을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진행순서 (1) 예배 (2) 한국과 북한,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3) 열방을 위한 기도 - 한주간 긴급기도

1.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23년째 매일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기도24·365 ‘2025 완주감사예배’ 드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외치며 열방을 위한 기도자로 일어서



열방을 위한 24시간 365일 연속 기도네트워크인 기도24·365 ‘2025 완주감사예배’가 지난 27일 선한목자교회(담임 김다위 목사) 6층 글로리홀에서 열렸다. 23주년을 맞은 이번 집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골방의 기도를 지켜온 기도자들 750여 명이 참석하였고 온라인 유튜브 생방송으로 국내외 많은 기도자들도 함께 했다. 한 해 동안 전 세계를 품고 기도로 열방을 완주하게 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시간을 가졌다.

기도24·365본부(이하 기도본부) 김순애 선교사는 개회사에서 “화목난로에는 좋고 굵은 목재뿐 아니라 불품없는 마른 나무가 불쏘시개로 들어가야 큰 불길을 이룰 수 있다”며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이라는 큰 기도의 불길은 연합으로만 이룰 수 있다. 때로는 바짝 마르고 메말라 불품없는 기도라 할지라도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연합하여 큰 기도의 불길로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피력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사 40:9)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 김용의 선교사는 “‘하나님을 보라’는 외침이 복된 소식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사람, 자기 자신이 그저 한 잎의 풀잎같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이라며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엎어질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외쳤다.

이어진 기도자들의 간증에서 다음세대 선교사로 아프리카에 파송된 김○○ 선교사는 “선교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고백했다. 이어 최영신 목사(주소망 교회)는 통치 말씀을 통해 상황이 아닌 진리가 기도의 결론이 되게 하셨고, 기도를 통해 포기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배우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더욱 사모한다고 전했다.

열방을 위한 기도자들이 모인 집회인 만큼 이날 수백 명의 기도자들은 열방의 상황, 다음세대, 빅해받는 교회를 위해 합심하여 뜨겁게 기도했다. 마지막 순서로 울려 퍼진 합창곡 ‘그날(one day)’이 하나님의 임재와 감격을 더해 장내 곳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는 이들이 이어졌고, 아름다운 합창은 모든 참여자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될 ‘그날’을 소망하는 자리로 이끌었다.

이번 집회에 참석한 기도자 전소정 집사(48. 서울 증산아침교회)는 “최근 여러 나라 상황과 다음세대들의 상황들을 보면서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많이 힘들었다. 그런데 오늘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는 말씀이 히스기야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먼저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 하나님뿐이구나. 그래서 더 감사함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다”고 고백했다.

이번 완주감사예배는 지난 23년 동안 이어져 온 기도24·365 운동의 걸음을 돌아보는 자리이기도 했다. 그간 말씀을 따라 기도해 온 기도자들은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파수꾼으로 부르셨음을 다시 기억하며, 힘써 소리를 높여 만백성을 깨우는 예수교회로 일어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를 파수할 것을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이사야 40:9)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요한계시록 8:3-4)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매일 기도의 골방에서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기도자들을 세우시고 23년 동안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완주감사예배에 참여한 이들과 한국교회 모든 성도가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신 주의 말씀을 가난한 심령으로 받아 전심으로 하나님만 붙드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악이 기승하는 것 같이 사방으로 욱여싼 한국과 열방의 영적전쟁 한복판에서 유일한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외치는 믿음의 용사로 일어서게 하소서. 주님, 한국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기도의 손을 높이 들게 하사 하나님께서 흠향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을 이뤄주옵소서.

2. 북한을 위한 기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北, 러시아 파병 전사자 ‘자폭 영웅담’ 교양…“목숨 바치면 영생”

영웅으로 미화하면서 영생론까지 결합해 군인 충성심 고취



북한 군 당국이 최근 러시아 파병 전사자들의 ‘자폭 영웅담’으로 교양 사업을 진행하며 “목숨을 바치면 영생을 누린다”는 식의 극단적 희생정신을 군인들에게 반복 주입하고 있다. 이는 충성심 고취를 노린 체계적 사상학습의 일환이라고 소식통이 전해왔다.

24일 데일리NK 북한 내부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핵심은 최고사령관(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명령을 받들기 위해 스스로 한목숨 바친 군인들의 충성심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러시아군도 해내지 못한 특출한 전과를 달성했다”라는 식의 선전도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북한군은 특히 “목숨을 바치면 영생을 누린다”면서 군인들의 희생을 노골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자폭 용사들을 따라 배우자”라는 새로운 구호까지 등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교양 사업의 방식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죽음을 불사하면 영생한다는 식의 표현은 확실히 강해졌다”고 말했다.

실제로 북한 당국은 전장에서 목숨을 잃은 군인을 ‘결사(決死) 정신으로 최고지도자의 명령을 받든 영웅’으로 미화하고 있는데, 이는 군인 개개인의 생존권은 보장되지 않은 채 희생이 강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목숨을 바치면 영생한다”는 말은 김일성·김정일 시대부터 이어져 온 수령 영생론과도 같은 흐름에 있다. 선대지도자를 초월적 존재로 끌어올리고, 그와 결속된 충성을 ‘영생’이라는 종교적 개념으로 포장해 개인의 희생을 미덕으로 강요하는 식이다.

소식통은 “이런 교양 사업은 내부 조직적으로 충성심을 다지기 위한 것이라 말하고 있다”며 “교양에서는 러시아 전쟁 참가의 의미는 ‘북러 친선 강화’ 수준에서 언급될 뿐이고, 최고사령관 동지의 신임에 보답하는 투철한 충성의 실천이 가장 핵심적으로 강조된다”고 말했다.

한편, 20대 초반의 군인들은 이 같은 교양 사업에 의례적으로 참가하며 대체로 체념하는 분위기로 전해졌다. 다만 일부 군인들은 오랜 세월 반복된 세뇌 교육의 영향으로 충성심과 희생 의지를 표출하기도 한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군 내부에서는 이런 식의 반복적인 교양으로 군인들의 참전 의지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감지된다.

소식통은 “군 간부들도 몇십 년째 동일한 방식으로 지속돼 온 교양 사업이 100% 성공할 것이라 보지는 않는다”면서 “중요한 것은 군인들이 실제로 전장에 나가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느냐인데, 이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교양 사업의 방식이나 내용 조정도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출처: 데일리NK 종합).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한복음 17:3)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디도서 3:5)

하나님, 유일하시며 영생이신 하나님의 신성을 한낱 죄인의 불의한 정권 유지의 충성심을 강요하기 위해 이용하는 김정은 정권의 교만함을 꾸짖으사 속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끊임없는 세뇌와 종교적 포장으로 하나님에 없다 하는 사상에 갇혀 우상숭배로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을 불쌍히 여기사 진리로 깨워주십시오. 학생과 충성의 끝에 공허함과 슬픔으로 가득한 이들의 심령에 진정한 영생의 갈망을 일깨우사 참 하나님과 예수그리스도를 알게 되며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주의 긍휼하심을 따라 베푸신 은혜임을 알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복을 받게 하소서.

3.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부모 손에 죽는 아이들”…아동학대 비극의 고리 끊어야

학대 신고 5만건…가해자 10명 중 8명 부모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초등학생 자녀를 밀치고 흉기를 던져 다치게 한 어머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음식을 던지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9월에는 11개월 딸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배와 가슴을 때린 뒤 방바닥에 내던져 숨지게 하고, 시신을 스티로폼 박스에 유기한 20대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4,492건에 이른다. 학대로 숨진 아동은 30명이나 된다. 5년 전인 2020년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정인이 사건)이 알려지자 전국민적 분노가 일었다. 이후 관련 처벌 강화와 대응 체계가 정비됐지만 아동학대는 끊이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발표한 ‘2024 아동학대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5만242건으로 전년(4만8,522건)보다 3.5%(1,720건)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추세를 보면, 2021년 일시적 급증을 제외하고 신고는 꾸준히 증가세다. 2020년 4만2,252건을 시작으로 2021년 5만3,932건, 2022년 4만6,103건, 2023년 4만8,522건이 접수됐다.

문제는 가해자 대부분이 아동을 보호해야 할 ‘부모’라는 점이다. 학대 행위자의 84.1%(2만603건)가 부모였고, 발생 장소의 81.7%가 가정이었다. 학대 행위자 중 부모의 비중은 2020년 82.1%, 2021년 83.7%, 2023년 85.9%, 2024년 84.1%로 압도적이다.

부모에 의한 재학대도 심각한 실정이다. 전체 재학대 3,896건 가운데 부모의 비율이 무려 98%에 달했다. 이에 공공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 교육을 제공하고 있지만, 대부분 신청제로 운영돼 위기가정 보다는 평소 양육에 관심이 많은 부모가 주로 참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예방 효과를 높이려면 위기가정이 실제로 접근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부모 급여 등 복지 혜택을 받을 때 아동학대 관련 강의를 듣도록 연계하는 등 위기가정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교육 프로그램이나 콘텐츠도 표준화해 위기가정이 쉽게 도움받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역 공동체 가운데 교회가 아동학대 예방과 인식 개선의 한 축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지현 장로회신학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예배 시간에 체별과 아동학대 문제를 다뤄 폐해와 심각성을 알려야 한다”면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보급해 자녀가 존엄한 인격체라는 점을 인식시키고, 자녀의 존엄성을 고양하는 방식으로 양육하도록 가르치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출처: 데일리굿뉴스 종합).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에베소서 1:4-6)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사편 102:17-18)

하나님, 부모의 전적인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할 어린 아동을 폭력과 죽음으로 내모는 사탄을 꾸짖으시고, 학대 가운데 놓인 다음세대를 주의 보혈로 덮어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죄악으로 깨어진 모든 가정을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의 손을 들게 하사, 창조함을 받은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소서. 자녀를 진실과 인내로 양육하기를 포기하고 폭력을 쏟아내는 부모들을 진리로 가르치사 부모와 자녀 모두 창세 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주님의 것임을 그들로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베풀신 십자가 복음으로 무너진 가정과 자녀 세대를 인도하사 고통과 눈물이 아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기쁨을 회복하여 주소서.

다음은 ‘열방의 긴급기도정보’로 기도가 진행됩니다.
각 해당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실1 -

기도실2 -

기도실3 -

소그룹별 기도가 마친 후에는 다시 함께 모여 합심기도로 마무리합니다.